

2022 회계연도 강화군 재정현황 투명하게 공개 강화군, 「강화군 살림살이」 책자 발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회계 용어로 작성된 각종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알기 쉽도록 도표화해 강화군 전체 예산에 대한 운영현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강화군 살림살이'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 농림해양수산 지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차장·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 현황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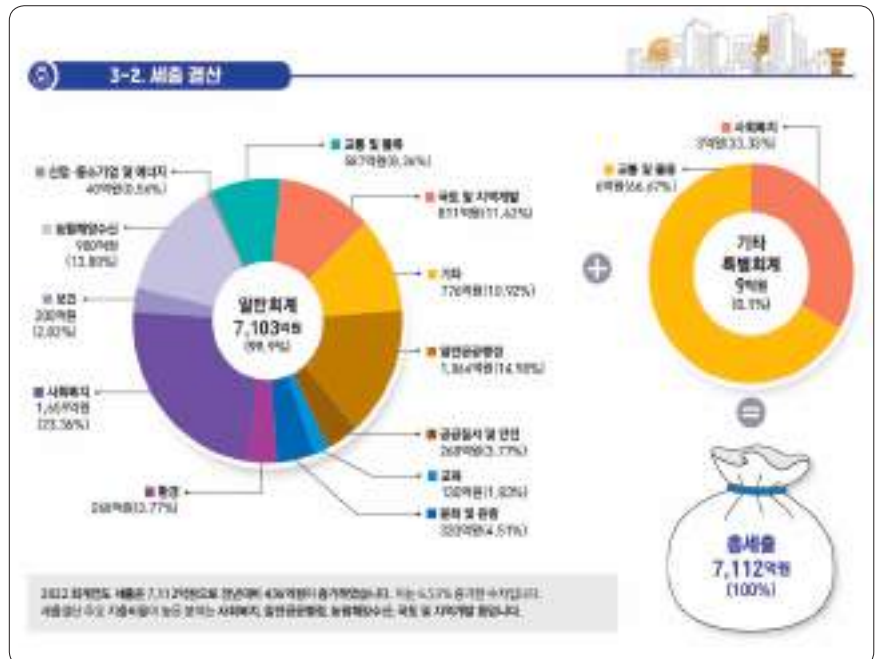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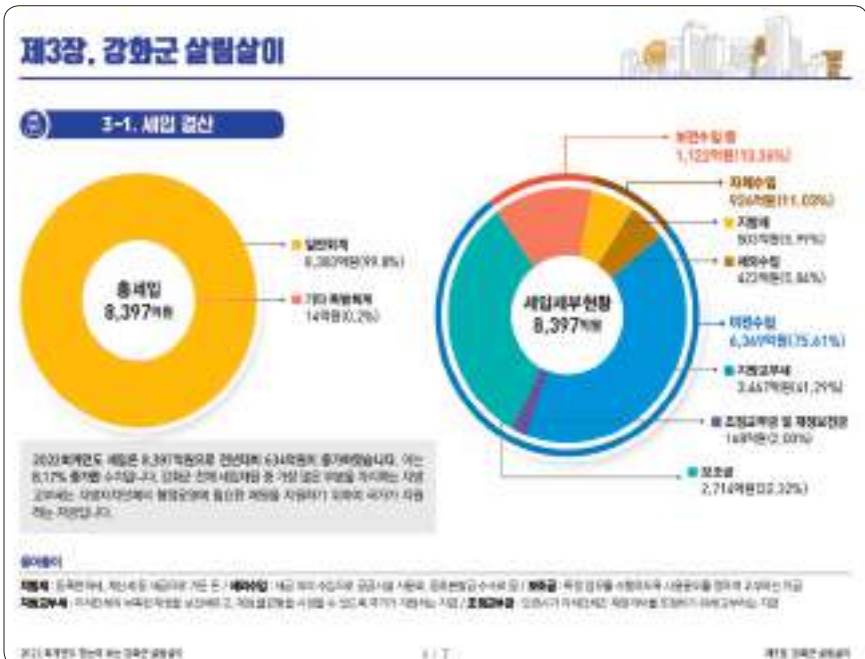
2022년 한 해 강화군 살림살이 총수입은 8,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4억 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7,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1,499억 원

(22.86%), 농림해양수산 1,096억 원(17.29%), 국토 및 지역개발 872억 원(13.76%) 등이다.

강화군 총자산은 2조 7,333억 원이며, 공무원 퇴직금,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등이 포함된 부채는 185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대비 부채가 낮다. 또한, 대규모 재정사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없어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결산서 공개로 재정 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살림살이'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최백하 기자



재난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과잉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강화군, 집중호우 긴급회의 실시, 대비로 재난예방



현장점검(그랑드빌아파트)



현장점검(현대아파트)

지난 13일 강화지역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대비 재난예방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 주재로 각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각 읍·면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주요내용으로 ▲침수 위험지역 주민들의 즉시 대피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하천변 산책길, 농로 등 위험지역 주민 출입통제 ▲주민안내 방송 실시 등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주민 안전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에 대해 진행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추세로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지방에 200mm이상 예보되는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순찰과 안전조치 철저는 물론 침수 위험지역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읍·면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화군은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선행천 등 산책길로 주민이 자주 찾는 지역에는 출입금지 통제선을 설치해 초기 대응에 철저를 기했다. ▣

강화군, 호우피해 신속복구, 호우 이후에는 안전운전에 유의 당부 강화군 도로관리팀, 도로 안전환경 구축에 최선



호우피해 신속복구



호우피해 신속복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도로 관련 호우피해 신고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어요”, “길 맨홀이 역류한 물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등 위험요소 신고전화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군은 7월 한 달간 많은 비로 현장 근무자들이 24시간 대기하며 바로바로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취했다. 또한, 강화군은 올해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도로변 배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집중했다. 길가의 맨홀 및 스틸그레이팅 36개를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도로가 패인 40개소를 조치했다.

아울러 개발행위지 토사가 도로변으로 상습적으로 유입되는 8개소에 대해서도 계도 및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정말 많은 비가 퍼붓고 있다. 비가 온 후에는 도로가 패이고 일부는 침하되기도 한다.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반드시 읍·면사무소나 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특히, 운전자 등은 더욱더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 강화군, 읍·면 협의체 위원장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을 위해 제1차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위원장 및 간사 등 26명이 참석해 23년도 마을 특화사업 추진 계획 및 위기가구 발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13개 읍면에서 280여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거노인,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마을특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군에서는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 조직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8월부터는 2023년 찾아가는 읍·면 협의체 역량 강화 전문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각 읍·면 협의체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위기 사향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의

89%높은 수료율, 69명 자격증 취득 쾌거 강화군 행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값진 결실

강화군 행복센터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16주간의 여정을 마쳤다.

행복센터는 지난 3월부터 자격증반, 어학, 미술, 공예, 의생활, 식음료, 악기, 어린이, 건강, 야간반 등 총 84과정을 운영했다.

뜨거운 열기속에 총 1,153명의 수강생 중 1,027명이 수료하며 89%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특히, 총 7개의 자격증 과정에서는 ▲국가 자격증 9명(제과기능사 3명, 제빵기능사 3명, 한식조리기능사 3명) ▲독서논술&그림책지도사(3급) 9명 ▲동화 구연지도사(3급) 10명 ▲커피바리스타 41명 전원 자격증 취득 등 총 6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강화군 행복센터 하반기 교육은 8월 21(월)부터 12월 9(토)까지 15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7월 27일(목)부터 8월 1(화)까지 진행되며,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병행된다.

강종욱 센터장은 “상반기 동안 행복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 자격증 취득의 결과를 얻으신 수강생들께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수강생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행복센터(☎ 934-390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

- 최백하기자



요가 프로그램



한식조리 프로그램

강화군, 「남산 쉼터」 군비 6억 9천만원 투입, 새로운 힐링 공간 조성



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던 소공원이 철거되자 주민들은 군에 대체 소공원 조성을 계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군은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군비 6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퍼걸러 1개, 등 의자 10개, 야외 운동기구 4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으로 관목 660주, 교목 20주를 식재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착공에 들어갔다.

남산 쉼터는 '세대공감 쉼터' 콘셉트로 낮에는 해와 함께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고 퍼걸러 안에서 독서할 수 있으며, 밤에는 달과 함께 산책 의자에 앉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명상에 잠겨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새로 조성된 쉼터에서 군민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쉼터가 필요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6일 「남산 쉼터」가 합일초교 인근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남산 인근 도로 확장으로 인해 오랜 세월 야외 운동기구, 녹지공간 등

2024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강화군, 노후된 공동주택 보수비용 신청하세요!

옥상방수 공사, 단지 내 도로 등 보수, 재해우려 옹벽 보수 등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공사 전(옥상방수)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공사 후(옥상방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4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 시비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미리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신청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사용승인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올해는 11개 단지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이 지원됐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지속 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총 지원된 예산은 13억 4천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지원내용은 ▲옥상 방수 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의 보수·교체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 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문의 ▶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 032) 930-3865

8월 31까지...수산물 취급업소 60개소 대상 강화군,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점검 실시



강화군 -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달 31일까지 수산물 취급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어판장 등 수산물 취급 식품접객업소 60개소로 ▲수산물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활어 보관시설 및 운반차량 위생점검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홍보물도 배부하며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위생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와 생선류 섭취 또는 피부 상처와 바닷물이 접촉해 감염되며, 급성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사율(50%)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

+ 생명사랑병원 지정

지역 내 생명사랑병원 3곳 지정, 자살예방안전망 구축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병원」지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병원 지정(강화튼튼신경외과)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원길)는 지난 24일 지역 내 의료기관 3곳(강화튼튼신경외과, 제일성모의원, 임용철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생명사랑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명사랑병원은 내원한 주민 중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속하게 의뢰·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심리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치료연계 등 촘촘한 맞춤형 지원 및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생명사랑병원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개입 ▲의료 종사자 자살대응 역량강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홍보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안전망 구축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병원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높아,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의 마음건강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2-932-4093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s://ghmhc.or.kr>)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강화군,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섰다.

군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복무점검과 함께 소극 행정,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 강령 위반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재난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무사안일, 책임회피, 민원처리 지연 등 재난 사고 발생 대비 예방체계도 점검해 돌발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군민 불편 초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찰 결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내실 있는 공직감찰로 청렴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취약계층에 3,402가구, 가구당 5만원 냉방비 특별지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1일 취약계층에 특별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냉방비 특별지원은 재해구호기금으로 1회 한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지원 대상은 총 6월 23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디딤돌 안정소득, 차상위 자격 보유가구 등 취약계층 3,402가구에 대해 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가구에 금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7월 24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24일부터 택시요금을 1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또한, 0시부터 적용됐던 심야시간은 밤 10시로 당겨지고, 기존 20%였던 심야할증률도 차등을 두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그 외 시간은 20%로 적용된다.

군은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96m당 100원)과 시간요금(15km이하 주행 시 30초당 100원)은 현행기준(2010년 이후)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

강화군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최백하 기자



강화읍 택시승강장

■ 시행일시 : 2023. 7. 24. (월) 04:00부터

■ 택시요금 인상 내역

구분	현행	조질
기본요금(거리, 금액)	2km이하 3,800원	1.6km이하 4,800원
(11후 운임제 단위거리 (100m))	96m	변동 없음
시간부담 단위시간 (100원)	30초	변동 없음
할증요금	적용시간	00:00 - 04:00
	심야	25:00 - 02:00 40%
	일출	그 외 시간 20%
	시외	50%
택시	없음	변동 없음
요금 상회	1,000원	변동 없음

살기 좋은 강화의 미래, 성장 기반시설 확대 유천호 군수, 광역교통망 확충에 사활을 걸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유천호 군수가 작년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취임식에서 유군수는 “오직 강화 발전과 주민행복만 바라보겠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선8기 1년이 지난 지금 유 군수는 “민선7기 4년과 민선8기 1년은 구뫼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이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이는 강화군 공무원들과 믿고 지지해준 주민들 덕분이다”며 “앞으로 3년은 강화 발전의 초석이 될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의 미래 “성장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살펴보자.

광역교통망 확충

성장 기반시설 확대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이다.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계양구 상야동 간 약 29.9km를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5,786억 원(추산)이 투입되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202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을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8월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0년 8월 사업을 확정했다.

유천호 군수는 이 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2025년부터 강화군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초지대교~거침도간 해안도로 건설’이다. 본 사업은 인천 서구(거침도)를 김포시를 통과하여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구간은 6.47km이며, 사업비는 561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 구간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김포 구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이외 강화~김포공항 철도 추진, 군도11호선(인화~교동) 국도 지정(국도48호선),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건설, 국도48호선(마송~강화) 도로 확장 등의 사업은 중앙부처,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군내 도로망 및 대중교통 확충

먼저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이다. 본 사업은 서도면 주문도와 아차도·볼음도에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40억 원을 투입해 해상교량 1.61km(주문~아차 0.55km, 아차~볼음 1.06km)을 2028년까지 1단계(주문연도교)와 2단계(볼음연도교)로 나눠서 건설한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그 간 예비타당성 탈락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인 500억 원을 우회하는 묘수로 지난해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총 사업비 20억이 투입되는 ‘마을안길 및 농로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순항 중이다.

‘군내버스의 주민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은 버스노선 개편 용역 시 대중교통망 확충 및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도착정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주민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안순환도로 4공구(인화~황청), 5공구(인화~철산) 조기 완공 추진’의 경우 강화군에서 직접 추진 중인 4-1공구(창후~인화) 구간을 조속히 완공하고 이외 인천시 사업 구간의 조기 완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외 ‘상습 정체구간 교통환경 개선’, ‘서검도, 미법도 여객선 신조 추진’을 위해 용역과 관계기관 건의 등을 지속 해 나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마무리와 주차장, 공원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신문, 새시장, 온수지구)은 새시장의 경우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신문지구의 경우 내년 11월 준공될 전망이다. 온수지구는 2025년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지속적 확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과 공공수역(하천, 해역 등) 수질 보전(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해 강화하수처리구역(옥림리·용정리) 외 9개 처리(정비)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안전의식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개선

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절차·방법, 감소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관심을 높였다.

군은 소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발굴, 현업 작업장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들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전 직원이 동참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요인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송해면,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송퇴1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송해면 송퇴1리 경로당 준공

강화군 송해면 송퇴1리 노인회(회장 전찬혁)가 지난 18일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화군수와 시의원 및 군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송퇴1리 경로당은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805㎡, 연면적 99.62㎡(30평)의 1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은 물론 휴식기와 휴한기에는 어르신 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전찬혁 송퇴1리 노인회장은 “우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축 경로당이 준공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강화군수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강화군수는 “송퇴1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준공되어 기쁘다.”며 “새로운 경로당에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2023 강화 청소년 라이프디자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강화 청소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7월 27일에 강화지역 초·중·고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2023 강화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강화교육지원청과 강화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7/28, 8/10, 9/2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는 강화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일상의 이슈를 모으고 기록하는 과

정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을 서로 공감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해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7월 27일~28일 1, 2회차까지 참여한 이OO 교사(해명초)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화 청소년들이 생각, 경험, 의견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이들의 정체성 발견과 관심사 등의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신감, 리더십, 공동체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7일, 28일에 걸쳐 이루어진 과정에서 강화 청소년들이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럿이 함께 팀빌딩 및 디자인씽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팀별 논의 주제를 정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련의 모습에서 앞으로 9월까지 이루어질 이번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물이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즐기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화군 6개소 선정, 30년 이상 전통 이어온 '이어가게'

강화군 금풍양조, 대명사, 만물상회, 서문김밥, (주)섬고기, 청운서림 선정



금풍양조주식회사



청운서림

독심있게 30년 이상 전통을 지켜온 인천의 이어가게 8개소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2일 이어가게 위원회를 개최해 금풍양조주식회사, 서문김밥, 미도방만두 등 강화군, 서구에서 오랜 시간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색있는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가게는 '대대로 물려받아서 가게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노포, 오래된 가게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대 시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인천만의 노포 명칭을 '이어가게'로 부르기로 하고, 2020년부터 올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해 그동안 총 34개의 이어가게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제4권역인 강화군·옹진군·서구 지역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대를 이어오거나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한 특색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위원회는 접수한 21개소 중 ▲역사성 ▲성장성 ▲지역성 ▲희소성 및 차별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강화군·옹진군·서구 노포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올해 선정된 업체는 ①금풍양조주식회사, ②대명사, ③만물상회, ④서문김밥, ⑤(주)섬고기, ⑥청운서림, ⑦동국광고, ⑧미도방만두 등 총 8곳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2개, 서비스업 1개, 제조업 2개, 도·소매업 3개 업체이고, 지역별로는 강화군 6개, 서구 2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시 홈페이지 게시,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뿐만 아니라,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시설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업체당 5백만 원의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또 이어가게 브랜드아이덴티티(BI)가 디자인된 인증현판을 오는 8월부터 9월 중 제작해 가게에 비치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에 대한 가치를 헤아리고 이를 독심있게 보전하고 있는 이어가게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되어 시민들에게 오래된 것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8월 1일부터 접수,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한 달간 시 홈페이지서 접수 / 2023년 1월부터 6월분 이자 전액 지원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신청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 상반기(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다. 대학생은 졸업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시는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신규로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신청·접수 기간은 8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 8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며, 인천시 홈페이

지(www.incheon.go.kr)→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11월 말 확정해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선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기고

이경수

광해군, 강화에 갇히다



광해군 유배지로 전하는 교동읍성 동벽 구간

땅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강화도호부성 서문 안 어느 집, 한 사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땅굴을 판다. 사방은 겹겹 울타리로 막혔고 지키는 이들까지 있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삼 한 자루조차 없다. 땅을 파는 장비는 가위와 인두 정도. 벌써 며칠째 흙을 짚어내고 있다. 흙과 땀으로 얼룩진 스물여섯 살 사내의 눈빛이 처절하다. 사내의 이름은 이지. 폐세자 이지(1598~1623)이다. 폐세자라면?

그렇습니다. 광해군의 아들입니다. 무탈했다면, 아버지를 이어 조선의 제16대 임금이 됐을 사람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이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홀로 교동에 유배됐었지만, 광해군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광해군과 폐비가 강화부성 동문 쪽에 갇혔고 폐세자와 폐세자빈은 서문 쪽에 갇혔습니다. 이때가 1623년(광해군 15) 3월입니다.

스무날 넘게 굴을 판 폐세자 이지, 드디어 다 뚫었습니다. 캄캄한 밤을 기다려 담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졸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맙니다. 폐세자 끌려간 지 사흘째, 낙담한 폐세자빈이 목을 매 자결합니다.

폐세자 이지를 벌하러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유형입니다. 이유형은 자결하라는 인조의 명을 전합니다. 이지는 처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갇힌 동쪽을 향해 절합니다. 부모님께 올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인사 마친 후 목을 땀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어느새 가을이 깊었습니다. 폐비 유씨 그러니까 광해군의 부인이 병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강화로 유배 온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의사



광해군묘(경기 남양주)

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화병(火病)입니다. 청천벽력으로 닥친 폐위, 유배, 며느리 자결, 아들 사망. 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해군, 이제 혼자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며느리, 아들,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때 광해군 나이 49세. “삼시 끼니를 물에 만 밥을 한두 손갈 뜨는 데 불과할 뿐이고 간혹 벽을 쓸면서 통곡하는데 기력이 쇠진하여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지경”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고 귀양살이도 적응해 갑니다. 멘탈이 상당히 강했던 것도 같습니다. 연산군은 유배 뒤 불과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광해군은 오래도록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중립외교를 펼치다

광해군은 34세에 임금이 되어 49세까지 햇수로 16년간 즉위했습니다. 폐위되고 시작된 유배 생활은 67세에 사망할 때까지 19년간 계속됐습니다. 재위 기간보다 유배 기간이 더 길어요. 광해군의 귀양살이는 강화에서 시작해 제주도에서 끝나게 되는데,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1623년(인조 1) 3월에 강화도로 귀양 와서 1636년(인조 14) 12월에 교동으로 이배됩니다. 1637년(인조 15) 4월 이후에 제주도로 옮겨지고 그곳 제주에서 1641년(인조 19)에 세상을 떠납니다. 열추 따져서 강화도 유배 기간은 14년여, 교동도 유배 기간은 수개월, 제주도 유배 기간은 4년 정도였습니다. 14년여 강화도 유배 시기에 임시 귀양지로 몇 번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괄의 난 때 충청도 태안으로, 정묘호란 때는 교동도 거쳐 정포(내가면 외포리)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재위 기간에 자신보다 정통성에서 앞서는 형 임해군을 교동으로 유배 보내 죽였고 아우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보내 죽였습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형과 동생을 강화로 내쳐 죽였으나 결국은 자신도 강화로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광해군을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라고 배웠습니다. 폐위되어 마땅한 임금으로 치부했습니다. 지금은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립외교’라고 하는 광해군의 외교정책이 높게 평가됩니다.

비록 가짜를 내세운 형식이기는 하나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를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광해군 역을 맡은 이병헌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



창경궁 통명전



창덕궁 인정전

입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의 충돌이라는 심각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을 막으려는 슬기로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중립외교를 펼친 것입니다. 조정 신료 대부분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에 '올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랑캐 후금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명분보다 실리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교훈으로 삼을만한 사례가 광해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교는 가치나 명분보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보다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 외교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진정한 친구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일어나 정권을 잡은 인조는 명나라에 더 다가가고 후금을 멀리하는 변화를 꾀합니다. 현실보다 명분을 택한 것입니다.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인조 정권 때 조선은 후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정묘호란(1627)입니다.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침략한 병자호란(1636)도 겪게 됩니다. 나라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입은 참혹한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염하에 배다리를 설치하자

저는 인조보다 광해군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저의 평가 기준은 '임금이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는가'입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는 강화로 피란 왔습니다. 어느 날 인조가 연미정에 갔다가 김포 쪽에서 배 한 척 건너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난민들이 타고 오는 걸 겁니다.

인조는 앞으로 배 한 척도 강화로 건너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합니다. 한 신하가, 살려고 피란 오는 백성을 어찌 막습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인조가 하는 말, "일이 이미 위급한데 어찌 작은 폐단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 어찌 백성의 목숨이 작은 폐단이란 말인가요.

반면에 광해군은 강화와 김포 사이 염하에 부교(浮橋)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후금이 쳐들어오면 조정을 강화로 옮길 것이다, 임금이야 배 타고 건너면 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백성은 배를 타지 못해 후금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백성을 신속하게 강화도에 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배다리를 놓자! 이게 광해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사실, 폭군이라 평하기 어렵습니다. 폐위되어 마땅한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전쟁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조금 과장 섞인 기대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궁궐 또 궁궐

그럼에도, 저는 이제, 임금 광해군에게서 느끼는 아쉬움을 말하려고

합니다.

광해군은 탁월한 국제 정세 분석가이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외교에서만 찾으려 안 됩니다. 우선은 국방력을 갖춰야 합니다. 강한 군사를 육성하고 각종 군사 시설을 갖추고 군량과 무기 등을 넉넉하게 비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멋있는 말만 했지, 진정성 있게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군대도 키우고 군량도 확보하고 방어 시설도 세웁니다.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라 살림은 엉망이고 백성들 삶은 피폐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광해군이 집중해서 추진한 일은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궁궐 건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모두 불태웠습니다. 궁궐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지은 것이 문제입니다.

창덕궁, 경운궁(덕수궁),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경희궁)을 광해군 때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종 물품을 끊임없이 바쳐야 했고 노동력도 징발당했습니다. 차라리 전쟁통이 나올 지경입니다. 신하들이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상시에 쓰려고 강화에 비축해 둔 곡식까지 가져다 궁궐 공사에 쓰기도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그리도 간절하게 외치던 광해군입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랐습니다.

1616년(광해군 8), 궁궐 조영 담당 관서에서 광해군에게 건의했습니다. 산지에서 박석을 캐 수송해 오는 일이 백성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니, 경복궁 뜰에 깔린 박석을 걷어다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해군이 "경복궁도 중건해야 하니, 깔아놓은 돌을 모두 가져다 쓰지는 말고" 조금만 옮겨다 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나, 경복궁까지 다시 세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박석(薄石, 두께가 얇고 넓적한 돌) 산지 중 한 곳이 강화입니다. 그 거 캐서 옮기느라 주민들이 죽어났어요. 강화부사 이안눌이 비변사를 통해 하소연했습니다. "그동안 강화부에서 나는 박석을 창경궁 등 궁궐 공사장으로 운송한 것이 몇천만 장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박석 1만 장에 석회 530여 석을 보내라고 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강화뿐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나친 궁궐 건설입니다. 광해군은 창덕궁 공사 중에 즉위해서 인경궁 공사 중에 폐위됐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공사중'이었습니다. 인경궁은 인조 즉위 뒤 해체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관의 한탄이 실록에 실렸습니다 <“광해군이 궁궐 건설에 어떤 극단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 기울였으니, 만약 궁궐을 짓고 보수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어찌 어지럽거나 망하는 화가 있었겠는가.”>

칼럼

삼국지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우리나라에서 ‘삼국지’처럼 독보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는 책은 드물다. 중국 원나라 때 나관중이 지은 소설이지만,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책을 뛰어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방도를 일러주는 지침서처럼 여겨진다.

이러다보니 기업에서 삼국지를 경영에 접목시킨 강좌가 진행되고, 육군사관학교는 삼국지에 나타나는 전략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 관련 강의를 펼쳤다. 심지어 삼국지를 읽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때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됐다.

이러니 삼국지 출판 열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삼국지는 370개에 달하고 만화로 된 삼국지도 10여개 있다. 삼국지 처세술·경영학·논술 등 실용서도 50여종 등장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는 삼국지 출간이 봄을 이뤘다. “보름에 한 개씩 새로운 삼국지가 나온다”는 말까지 나왔다. 삼국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도 있었다. 인하대 부설기관이었던 ‘삼국지연구소’가 그것으로, 삼국지를 실증적·학술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연구소는 비록 3년만에 사라졌지만 나름대로 업적(?)을 남겼다.

삼국지 등장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싸움을 잘할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의견이 분분했다. 판본마다 내용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다, 읽는 사람의 인물 선호도가 달라 서열을 따지기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관우, 조자룡, 장비, 여포 등이 호사가들의 입에 자주 거론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삼국지연구소는 이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연구소는 “단순 무력으로만 봤을 때는 여포가 최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우-장비-조자룡-마초-황충-위연-하후돈-허저-전의 순으로 ‘무력 10걸’을 선정했다. 삼국지에서 여포의 무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관우와 여포가 형주성 앞에서 맞붙었는데 관우가 밀리자 지켜보던 장비가 가세했고, 그래도 여포를 제압하지 못하자 유비까지 끼어들었다. 이렇게 3대 1의 싸움이 한동안 지속되다 여포가 지치자 “다음에 보자”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이를 감안하면 여포의 전투력은 관우와 장비를 압도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종합적인 장수적 자질에 있어서는 관우를 최고로 꼽았다. 또 지략이 뛰어난 책사(策士)를 제갈공명-방통-사마의-육손-순욱-가후 순으로 나열하면서 ‘책사 6걸’이라고 명명했다.

삼국지 최대의 논란은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다. 내용 가운데 70%는 사실이고, 30%는 허구라는 것이 정설처럼 돼있다. 이른바 ‘7대 3(七實三虛)’ 구도로 공식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삼국지를 단순히 소설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무게를 둔다. 하지만 본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막상 삼국지를 읽어보면 극적인 우연이 너무 많은데다, 줄거리 구성의 작위성을 두드러지고 사실관계 인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국지 기행’ 저자로 삼국지 전문가인 허우범 선생과 술자리를 함께했을 때 의문을 제기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사실이 3이고 오히려 허구가 7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허구가 90% 이상”이라며 웃었다. 정사(正史) ‘삼국지’(서기 285년 진나라 역사가 진수가 편찬)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역사서를 분석하고 중국 현지를 답사(8년간 20차례)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몇가지 예를 들었다. 삼국지 도입부의 백미인 ‘도원결의’(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숲에서 의형제를 맺은 것)는 애초 없었고,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삼고초려’(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그가 사는 초가집을 3번 방문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즉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제갈공명이 먼저 유비가 머무는 진중을 찾아가 자신을 소개한 뒤 등용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또 제갈공명은 비바람까지 부르는, 신에 가까운 전략가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론 유비가 세운 촉나라 재정 등 주로 내치를 담당하는 재상이었다고 한다. 삼국지연구소 조성면 연구원이 “삼국지는 중국인 특유의 과장과 ‘축한 정통론’의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史實)과 부합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게다가 판본마다 작가의 의도가 많이 가미됐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허우범 선생은 아울러 대부분의 삼국지 판본에서 성인군자로 묘사되고 있는 유비에 대해 “유비는 ‘쪼다’면서도 음흉한 성격을 지닌 이중 인격자였다”고 말했다. 만화가 고우영이 그린 삼국지에 유비의 이런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만화라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삼국지 스토리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 선생은 “삼국지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이 맹신과 편향, 오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삼국지에는 중화주의(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인의 우월성을 강조)가 깊게 배어 있으며, 지금은 중국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데 필요한 문화 콘텐츠로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삼국지 열풍’에 우려를 표했다.

삼국지연구소도 ‘삼국지 신드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연구소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생산적이거나 교육적이지 않다”면서 지나친 몰입을 경계했다. 더욱이 어린이를 위한 어학용 삼국지 애니메이션은 비교육적 용어로 점철돼 있으며, 만화 삼국지는 일본작품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삼국지연구소 윤진현 연구원은 “음모와 살상이 난무하고 역사적 사실과 창작 부분의 구분이 모호한 삼국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국지의 진실을 헤아려 보고 삼국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

강화군, 산림공원과 포상금 1백만 원 기탁



산림공원과 기탁식

강화군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14명의 직원들은 지난 6월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 5명의 학생들에게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산불예방, 임도 등 산림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가 많다”며, “고생해 받은 포상금을 따뜻한 나눔까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산림분야 합동평가에서 산불방지, 임도, 산림자원 조성, 녹색 복지 공간 조성, 산림휴양 시설 확충 등 산림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

남부인지건강센터, 치매어르신 생신잔치 큰 호응 어르신·가족 등 추억 쌓기 시간 가져



남부인지건강센터 치매어르신 생신잔치

강화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치매관리 센터인 남부인지 건강 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생신잔치를 열어 드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치매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어

르신들에게 축하와 박수 노래 부르기, 치매 어르신들의 축하 메시지 작성 롤링페이퍼, ‘나도 할 수 있어요’ 장기자랑, 모두 함께 사진촬영 등으로 구성했다.

생일을 맞은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단기 기억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들에게 추억 쌓기라는 기쁨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생일을 맞으신 이○호님은 “센터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고 수고가 많다”라고 하시며 “오늘은 쉼터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잊지 못하는 날로 기억이 될 것 같다”라고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센터에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 그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고민을 돕고 치매를 예방 조기치료할 수 있는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1**

현대자동차(연수지점) 이웃돕기성금 전달



현대자동차 연수지점 이웃돕기성금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9일 현대자동차 연수지점에서 근무하는 서태원 부장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화군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소외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취약계층 140가구, 3종의 밑반찬 전달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계속된 나눔의 손길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반찬나눔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25일 관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독거노인 등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직접 3종의 밑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140가구에 전달하고 일일이 안부를 살폈다.

김미경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는 9월 5일 2023년 강화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순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강화읍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강화읍 새마을회반찬나눔

강화읍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김은숙)는 지난 14일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봉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입맛이 떨어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위해 반찬을 직접 만들고 안부를 함께 살피며 직접 전달했다.

김은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더운 여름을 힘차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우종 강화읍장은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펼치는 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반찬 나눔 행사를 통해 새마을회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에게 닿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소통화 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개최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 전진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는 지난 28일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한 박승한 강화군 의회 의장과 군의원 등 지역 인사와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임원진

및 여성회 회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2부 행사로 진행됐다.

1부에는 유공자 표창, 대회사, 치사, 축사 등이 진행됐고, 2부에는 안보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 및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이 이어졌다.

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박봉식 회장은 “이번 전진대회가 자유수호 의지를 다짐하고 회원들 간의 결속을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유천호 강화군수는 “한 해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민주시민 의식 개선 사업과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기단의 영향권에 한반도가 들어가면 낮에는 고온이 지속되어 폭염이 발생하고, 밤에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높아 낮 동안 축적된 열이 식지 못하여 열대야가 나타난다.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을 온열질환이라고 하며, 크게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열사병은 40°C이상의 고열과 함께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 또한 심한 두통 및 오한, 어지러움(현기증)이 주요 증상이며 중추신경 기능장애로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

열사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거나 목·겨드랑이 밑·서혜부에 얼음주머니를 대어 체온을 낮추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젖은 피부와 창백함을 보일 수 있다. 또한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피로를 느끼며 구토, 어지럼증, 근육경련이 열탈진의 주요증상이다.

열탈진은 열사병과 다르게 충분한 물 섭취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상이 1시간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과당함량이 높은 이온음료는 피해야한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될 경우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종아리·허벅지·어깨 등에서 나타난다.

열경련도 열탈진과 마찬가지로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면 된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 심장질환이 있거나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한다.

열실신은 체온이 높아지면서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 의식소실을 보일 경우 시원한 장소에서 평평한 곳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두어 눕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열부종은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부종(몸이 붓는 증상)을 뜻한다.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시원한 장소에서 누워 휴식을 취한다. 온열질환을 기본적인 건강수칙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2023. 5. 8. 질병관리청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그림 및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오프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